

제2외국어/한문 영역

(러시아어 I)

문항번호	1	2	3	4	5	6	7	8	9	10
정 답	⑤	②	②	①	③	④	②	④	①	④
배 점	1	1	2	1	1	1	1	2	2	2
문항번호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정 답	⑤	④	⑤	①	③	④	⑤	①	③	②
배 점	2	1	1	2	1	2	2	2	2	2
문항번호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정 답	②	①	③	①	③	③	⑤	②	④	②
배 점	2	2	1	2	2	2	2	2	2	2

1. [출제의도] 모음 o의 발음 규칙

[해설] 모음 ‘o’의 발음규칙

* 강세가 있을 때만 본래의 음가를 갖는다: o к н o [aknó]

* 강세가 없을 때: 약화된다.

강세모음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약화정도가 다르며, 강세음절 앞에 있는 비강세 음절은 거리가 멀수록 약화정도가 심하고, 강세음절 뒤에 오는 비강세 음절은 모두 완전 약화된다.

- 강세없는 o가 단어의 중간에 있을 때:

- 강세모음 바로 앞 음절의 o: [a]: 즉, 짧은[á]

물 в о д а [vadá]

- 강세모음 앞앞음절과 뒤 음절의 o:

완전 약화: [ə](애매모호음)

‘으’, ‘아’, ‘어’, ‘오’도 아닌 애매모호 한 음: ‘으’에 가깝다..

우유 молоко [mɒlakó]; 늦게 поздно [póznə]

- 절대어두: 단어의 맨 앞에 오는 o: [a]: 짧은[a]

공항 аэропорт [aerapórt]; 반드시 обязательно [ab'izát'il'nə]

—<보 기>—
Посмотри в окно. Солнце светит 창밖을 봐. 햇빛이 나네!
[a]

① Он дома? 집에 있니?
[ó]

② Добрый день. 안녕하세요(아침인사).
[ó]

③ Спасибо, хорошо. 고마워, 좋아.
[ó]

④ Очень приятно. 매우 반갑습니다.
[ó]

⑤ Она идёт на работу. 그녀는 직장에 간다.(출근하고 있다)
[a]

* 보기의 о к н о의 첫 번째 o는 강세를 갖지 않고, 단어의 맨 처음에 오기 때문에 짧은 [a]로 발음된다. 선택지 중 ⑤ 번이 보기의 밑줄 친 o와 같은 발음을 갖는다. 정답: ⑤

2. [출제의도] 어휘: 가장 자주 접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어휘를 묻는 문제이다. 먼저 선택지에 제시된 철자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차례로 적용하여 읽어보면, ② e 만이 일정한 단어를 형성할 수 있는데, 가로방향은 ‘가족’ с е м ь я, 세로방향은 ‘아버지’ о т е ц가 된다. 정답: ②

가로방향 단어의 뜻: с е м ь я: 가족

세로방향 단어의 뜻: о т е ц: 아버지, ма ма: 엄마, д о ч ь: 딸, д я д я: 아저씨.

3. [출제의도] 자음 발음규칙

[해설] 자음의 발음규칙은 다양하다.

1. 연음화(구개음화): 연자음 표시모음(я, е, и, ю, ё) 및 연음부호 Ъ 앞에 오는 자음은 연자음으로 발음된다: TV т е л е в и з о р [tʲilʲivʲɪzər], 할아버지 д е д у ш к а [dʲeduškə]

반면에 경자음 표시모음 앞에 오는 자음은 그대로 발음된다: 여기에(서) т у т [tút] 집에(서) д о м а [dómə]

2. 어말 무성음화:

단어의 끝에는 항상 무성음만 가능하다: 유성음이 온다 해도 무성음으로 발음된다.

도시 г о р о д [górət], 남편 м у ж [múʂ]

이 때 어말 유성음은 다음 표와 같이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된다.

유성음	б[b]	в[v]	г[g]	д[d]	з[z]	ж[ʒ]
↕	↕	↕	↕	↕	↕	↕
무성음	п[p]	ф[f]	к[k]	т[t]	с[s]	ш[ʃ]

3. 역행동화

단어 내에서는 뒤에 오는 자음이 앞 자음에 영향을 주어 대응하는 유/무성 자음으로 동화시킨다.

역행 유성동화: 역 в о к з а л [vazál] 기차 п о е з д [pójst]: д [d]는 어말 무성음화, з [z]는 무성음화된 т의 영향을 받아 с [s]로 발음된다.

이와 같은 발음규칙에 따라 선택지에 제시된 단어들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을 보면 다음과 같다.

- ① 우리는 TV를 보고 있다. Мы с м о т р и м т е л е в и з о р. [tʲ] 연자음화
엄마는 여기 계신다. Ма ма т у т. [t] 원음 그대로 경자음
- ② 그는 고등학생이다. Он у ч и т с я в ш к о л е. [ʃ] 원음 그대로 무성음
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. Э т о м о й м у ж. [ʃ] 어말 무성음화
- ③ 자 여기 내 털모자가 있습니다. В о т м о я ш а п к а. [ʃ] 원음 그대로 무성음
저기 네 부인이 있네. Т а м т в о я ж е н а. [ʒ] 원음 그대로 유성음
- ④ 우리 할아버지는 의사입니다. М о й д е д у ш к а в р а ч. [dʲ] 연자음화

지금 나는 집에 있다. Сейчас я дома. [d] 원음 그대로 경자음
 ⑤ 이것은 모스크바시이다. Это город Москва. [t] 어말 무성음화
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Что ты думаешь. [d] 원음 그대로 유성/경자음

따라서 발음이 같은 짝을 이루는 것은 ②번이다.

4. [출제의도] 어휘 의미

[해설] 같은 부류(전자 제품)의 어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. 주어진 보기 중 밑줄 친 어휘들만이 전자 제품을 나타낸다.

телевизор	радио	компьютер
TV	라디오	컴퓨터
сумка	словарь	больница
손가방	사전	병원
аэропорт	бумага	карандаш
공항	종이	연필

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.

5. [출제의도] 어휘의미

[해설] 동사 ‘듣다’ слушать와 어울릴 수 있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이다. 즉, ‘들을 수 있는 것’으로, 타동사의 목적어(대격/목적격)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데, 선택지에 주어진 어휘들의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.

- ① 박물관 музей ② 우유 молоко ③ 음악(대격) музыку
 ④ 1월 январь ⑤ 패스포트/여권 паспорт

따라서 정답은 ③ 음악(대격) музыку.

6. [출제의도] 어휘

[해설]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휘를 묻는 문제이다.

제시된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은 ‘의자’ стул, ‘책상’ стол, ‘시계’ часы,

‘컵’ с т а к а н이다. 선택지에 제시된 ‘고양이’ к о ш к а는 그림에 묘사되어 있지 않다.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.

- ① 시계 ② 책상 ③ 의자
④ 고양이 ⑤ 컵

7. [출제의도] 문법

[해설] 주어(명사)와 술어(형용사)의 일치관계를 묻는 문법문제이다.

러시아어의 명사와 형용사는 성, 수, 격에서 항상 일치한다.

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주어 Е ё с е с т р а는 여성 단수 주격이다.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술어의 알맞은 형태는 여성, 단수, 주격이어야 한다. 정답은 ②번이다.

A : 개네 언니 이쁘니?

Б : 그래, 엄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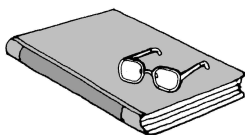
- ① 이쁘다(아름답다): 남성형 ② 이쁘다(아름답다): 여성, 단수, 주격
③ 이쁘다(아름답다): 중성 주격/대격 ④ 이쁘다(아름답다): 복수 주격/대격
⑤ 이쁘다(아름답다): 남성/중성 생격형, 혹은 남성 단수 대격형

8. [출제의도] 문법

[해설] 전치사 용법을 묻는 문제이다.

선택지에 제시된 전치사의 법은 다음과 같다:

- ① в:국가, 행정단위, 구상적 사물, 내부, 폐쇄 공간, 운동종목, 시간표시 등
장소: в + 전치격, 방향: в + 대격, 운동 играть в + 대격 등.
② от: 출발지점, 원인 등: 항상 от + 생격
③ из: 내부로부터 출발, 출신 등: из + 생격
④ на: 섬, 반도, 교량, 방위, 추상적 행위, 외부, 개방 공간, 표면 위, 연주 등
장소: на + 전치격, 방향: на + 대격, 악기연주 играть на + 전치격 등.
⑤ для: ~를 위하여: 항상 생격



A : 내 안경이 어디 있지?

Б : 책 위에.

따라서 정답은, 책 표면 위에 안경이 있으므로, 이를 묘사하는 전치사는
н а, 즉, ④번이다.

9. [출제의도] 문법

[해설] 동사활용형을 묻는 문제이다.

동사 ‘~이다, ~있다’ б ы т ь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:

- 현재형: 오직 3인칭 단수로만 쓰인다: е с т ь
- 과거형: 성과 수에 따라 서로 다른 활용형을 갖는다:

남성 단수: б ы л (я, т ы, о н)

여성단수: б ы л а (я, т ы, о н а)

중성단수: б ы л о (о н о)

복수: б ы л и (м ы, в ы, о н и)

- 미래형: 인칭과 수에 따라 서로 다른 활용형을 갖는다:

я б у д у т ы б у д е ш ь о н (о н а) б у д е т

м ы б у д е м в ы б у д е т е о н и б у д у т

그런데 б ы т ь 동사의 미래형은 동사 불완료상과 함께 사용되어, 술어의 미래시제를 나타낸다.

A : 너 영화 <전쟁과 평화> 볼 거니?

B : 그래, 볼 거야.

선택지에 제시된 б ы т ь 동사의 활용형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인칭과 수를 나타낸다.

- ① 1인칭 단수 ② 3인칭 단수 ③ 1인칭 복수 ④ 3인칭 복수 ⑤ 2인칭 단수

그런데 보기에서 필요한 형태는 1인칭 단수(я)와 일치해야 하므로, 정답은 ①번이다.

10. [출제의도] 문법

[해설] 동사 ч и т а т ь의 특성에 따른 지배관계를 묻는 문제이다.

동사 ч и т а т ь의 의미와 용법:

- 1) ‘읽다’는 의미의 타동사로 사용될 때는 목적어를 요구하며,
- 2) 그 자체가 ‘책을 읽다’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부사구 등이

요구된다.

그런데, 보기의 대화문 A는 의문문으로, 주어는 Лена이며, 동사 читать는 ‘읽다’의 의미로 사용되어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일 수도 있고, 그 자체가 ‘책을 읽다’는 의미로 사용되어 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.

만일 A에서 читать가 ‘읽다’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목적어를 요구하므로, 제시된 선택지에서 ‘읽을 수 있는 대상’인 ‘무엇’ что를 선택할 수 있고, ‘책을 읽다’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‘어디서’, ‘어떻게’, ‘언제’ 등의 의문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. 결국 ‘누구’ кто만이 남게 되는데, 이는 ‘읽을 수 있는 대상’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.

B에서 Лена는 역시 주어로 사용되었고, 동사 читать는 두 가지 의미로 공히 사용될 수 있다. 따라서 ‘무엇’ что에 대한 답으로 ‘소설’ роман, ‘어디서’, ‘어떻게’, ‘언제’ 등의 의문부사에 대한 답으로, ‘집에서’ дома, ‘잘’ хорошо, ‘저녁에’ вечером 등이 가능하다.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.

A: 레나는 (무엇을) 읽고 있지?

레나는 (어디서/어떻게/언제) 책을 읽지?

B: 레나는 (소설을) 읽고 있어.

레나는 (집에서/잘/저녁에) 책을 읽어.

- ① 어디서 - 집에서 ②무엇을 - 소설을 ③ 어떻게 - 잘
④ 누가 - 잡지(여격) ⑤ 언제 - 저녁에

11. [출제의도] 문법

[해설] 소유대명사와 소유대상과의 일치관계를 묻는 문제이다.

러시아어에서 소유대명사 중 1, 2인칭은 소유대상의 성, 수, 격에 일치하며, 3인칭은 소유주의 성, 수에 따른다.

그런데 대화문 B에는 소유주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, 소유주가 나, 너, 우리, 너희들, 당신, 그, 그녀, 그들 등 모두가 될 수 있다. 그런데 소유대상은 ‘개’ собака, 즉 여성, 단수이므로, 먼저 소유주가 1, 2인칭일 경우의 소유대명사는 ‘나’ - моя, ‘너’ - твоя, ‘우리’ - наша, ‘너희들, 당신’ - ваша에서처럼 소유대명사도 여성, 단수이어야 하고, 소유주가 3인칭일 경우, ‘그’ - его, ‘그녀’ - её, ‘그들’ - их에서처럼, 소유대상과는 무관하다.

따라서 선택지의 ⑤에 제시된 т в о ё는 소유주가 ‘너’이며, 중성이므로 바른 표현이 아니다.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.

A: 이게 누구의 개이죠?

Б: _____ .

12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그림을 바르게 묘사한 러시아어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.

그림은 두 사람이 테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.

정답은 ④번이다.

- ① 그들은 산책하고 있다.
- ② 그들은 식사중이다.
- ③ 그들은 창문을 열고 있다.
- ④ 그들은 테니스를 치고 있다.
- ⑤ 그들은 문을 닫고 있다.

13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날씨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.

A: 오늘 서울 날씨 어때요?

Б: 오늘 비가 옵니다.

- ① 요일 ② 취미 ③ 직업 ④ 나이 ⑤ 날씨

정답은 ⑤번이다.

14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안부를 묻고 답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.

- 안부를 묻고 답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:

* 안부 묻기 : 어떻게 지내? Как дела?(Как у тебя дела?)
= Как ты живёшь?

* 안부에 대한 답하기 :

안부를 물어 준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한 후(Спасибо!),

다음과 같이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다:

- 매우 좋아요. Прекрасно. = Очень хорошо.
- 좋아요. Хорошо.
- 모든 게 정상입니다. Всё в порядке.
- 그저 그래요. Ничего.
- 보통입니다. Нормально.
- 좋지 않아요. Плохо.
- 아주 좋지 않아요. Очень плохо.

* 이어서 ‘그러면 너는(당신은)?’ 이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,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:

А у тебя(вас)? 이것은 Как дела(Как у тебя/вас дела)라고 물었을 경우에 사용하고, А ты? 이것은 Как ты живёшь?라고 물었을 경우에 사용한다.
정답은 ①번이다.

A: 안녕하세요, 안나 이바노브나!

B: 안녕, 사샤. 어떻게 지내니?

A: 감사합니다. 잘 지냅니다. 그런데 (선생님은) 어떻게 지내세요?

B: 잘 지낸다. 고맙구나.

① 어떻게 지내니? ② 몇 시죠? ③ 얼마죠?

④ 넌 어떻게 생각하니? ⑤ 너 몇 살이지?

15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주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로서 아픈 부위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문장이다.

그런데 ‘아프다’는 의미의 동사는 бо л е т ь를 사용하는데, 막연하게 ‘그는 아프다’는 식의 표현은 Он болеет. Он заболел. 등에서처럼 인칭주어가 사용되지만, 구체적으로 ‘어디가 아프다’는 표현은 “У ког о бо лит(бо л я т) ~.”에서처럼 아픈 사람은 ‘У ког о(생격)’, 아픈 부위는 주격으로 표현한다.

예) 나는 머리가 팔이 아프다: У меня бо лит р у к а.

A: _____?

B: 머리가 아픉니다.

① 당신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?

- ② 당신은 어디 사시죠?
 ③ 어디가 아프세요?
 ④ 어디서 오셨죠(어디 출신이세요)?
 ⑤ 오늘 며칠이죠?

정답은 ③번이다.

16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축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은 Поздравлять кого́ с чем. 형태로, 축하받는 대상(사람)은 대격, 행사(예를 들면, 생일, 졸업 등)는 전치사 ‘с +명사 조격’을 사용한다.

A: 새해 축하드립니다.(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)!

B: 당신도 복 많이 받으세요!

대화문은 새해를 축하하는 내용으로, 정답은 ④번이다.

17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감사 표현과 이에 대한 대응표현을 묻는 문제이다.

* 감사 표현 및 대응:

- 감사의 표현 ‘감사합니다’ Спасибо! ‘대단히 감사합니다’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!

- 대응 표현 ‘천만에요, 별 말씀요’ Пожалуйста. Не за что. Не стоит.

A: 사전 좀 빌려주세요.

B: 자 여기 있습니다.

A: 감사합니다.

B: 천만에요.

- ① 나쁘다. ② 안된다. ③ 유감이군! ④ 멀지 않아요. ⑤ 천만에요.

정답은 ⑤ 번이다.

18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부사 ‘역시’ тоже 는 상대방의 견해나 행위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다.

A: 나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는데, 넌 어때?

B: 나도 그래, 난 특히 축구를 좋아해.

- ① 나 역시(나도 그래) ② 미안해 ③ 오른쪽으로 ④ 춥다 ⑤ 난 몰라

19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일상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유감표현이다.

유감을 표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, ‘안타깝게도’, ‘유감스럽게도’ к сожалению를 사용한다.

A: 영어할 줄 아세요?

B: 안타깝게도 할 수 없습니다.

- ① 감사합니다 ② 잘했어 ③ 안타깝게도 ④ 약속했어 ⑤ 아주 맛있다
정답은 ③번이다.

20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그림을 정확하게 묘사한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.

대화문에서 A가 ‘엄마, 나 배고파요’라고 한데 대한 대응표현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림은 A에 대한 대응으로 엄마가 뭔가를 가리키는 모습이다. 따라서 ‘엄마, 나 배고파요’라고 한데 대한 대응표현으로 뭔가 먹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.

A: 엄마 나 배고파요.

B: _____

- ① 모든 게 잘 되기를 빈다! ② 저기 과일 있어! ③ 즐거운 여행하렴! ④ 우리 집에 와라!
⑤ 너 우리 집에 초대할게!
정답은 ②번이다.

21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텍스트에 주어진 정보 중 바르지 않은 정보를 찾는 문제이다.

한국어 강좌

여러분을 한국어 강좌에 초대합니다!

* 수업시간: 1 ~ 3시

* 수업장소: 문화회관 210호

* 강사: 김민수(한국대학교)

* 교재는 1층에서 구입할 수 있음(20루블)

위의 공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, 한국어 강좌 실시, 강의시간 2시간(1-3시), 강사는 한국인, 강의 장소(문화회관) 등이다.

따라서 선택지 중 바르지 않은 정보는 ②번, 즉 정답은 ②번이다.

22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제시된 대화문 내용을 통해 관련 속담을 유추하는 문제이다.

A: 너 어디 가니?

B: 우체국에

A: 뭐 들고 가니?

B: 편지 백통.

A: 도와줄게.

B: 고마워. 함께 들고가면 아주 가볍겠단.

위의 대화내용으로 보아 뭐든 ‘함께하면 쉬워진다’는 내용의 속담을 유추할 수 있다. 정답은 ①번이다.

23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숫자와 관련한 의사소통 구문이다.

- 가격을 물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СКОЛЬКО СТОИТ?이다. 그런데 대화문에서 영화티켓 가격을 물었고, 이에 대한 답을 통해서 티켓 한 장이 100루블임을 알 수 있다. A는 티켓을 총 3매 구매하고자 하므로, 티켓 가격은 총 300루블이다. 따라서 대화문으로 보아 A가 지불할 금액은 총 300루블이다.

A: 영화티켓이 얼마죠?

B: 1장에 100루블입니다.

A: 그럼, 3장 주세요.

정답은 ③번이다.

24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상대방이 양해를 구하는 데 대한 동의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.

A: 그럴 당신 잡지 좀 볼 수 있나요?

B: 물론입니다.

A: 감사합니다.

- ① 물론입니다 ② 그럴 필요없습니다(안 됩니다) ③ 죄송합니다
④ 예를들어 ⑤ 왜냐하면

정답은 ①번이다.

25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논리적인 대화 전개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.

A : 에르미타주까지 어떻게 가죠?

B : _____

A : _____

B : _____

A : _____

(1) 에르미타주까지는 7번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.

(2) 감사합니다.

(3) 죄송한데, 전 모르거든요.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
요.

(4) 에르미타주까지 어떻게 가지요?

먼저 대화문에 등장하는 대화 참여자는 3명임을 알 수 있다.

또한 <보기>에서는 (4)에서 에르미타주에 가는 길을 또 한 번 묻고 있는 것
을 확인할 수 있다. 이는 처음에 물었을 때 모른다는 답을 듣고 다시 묻은
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.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‘모른다’는 답이
나왔을 것이고(3), 그래서 다시 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(4), 이에 ‘7번 버스로
갈 수 있다’(1)는 답을 듣게 되자, ‘감사하다’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(2).

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, (3)-(4)-(1)-(2)가 된다.

정답은 ③번이다.

26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레스토랑에서 나누는 대화 중 동의표현을 찾는 문제이다.

A: (먹을 게) 뭐가 있습니까?

B: 오늘 우리 레스토랑에는 육류, 생선, 수프, 샐러드, 커피,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.

A: 무엇을 추천해줄 수 있나요?

B: 오늘 참 덥거든요, 그래서 샐러드하고, 아이스크림, 그리고 냉커피를 추천합니다.

A: 좋습니다. 갖다 주세요.

- ① 이건 뭐죠? ② 뭐가 필요하신지 말씀해주세요.
 ③ 뭘 먹어야할지 말씀해주세요. ④ 뭘 드시고 싶지요?
 ⑤ 뭘 주문하시겠습니까?

동의표현을 요구하는 대화문은 손님이 종업원에게 하는 말이다. 그런데 대화문의 ‘추천해달라’는 표현은 ‘뭘 먹어야할 지’를 알려달라는 얘기이다. 따라서 이에 대한 동의표현은 ③번이며, ② ④ ⑤번 대화문은 손님이 아니라 종업원이 한 말로 추정할 수 있고, ①번은 손님이 한 말이지만, 동의표현과는 거리가 멀다. 정답은 ③번이다.

27. [출제의도] 의사소통 기능

[해설]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묻는 문제이다.

일반적으로 서로를 소개할 때는 (서로) 인사하세요. **Познакомьтесь** 복수표현을 사용한다.

A: 빅토르 이바노비치씨, 인사하십시오. 이 사람은 제 형 안톤입니다.

B: 저는 빅토르 이바노비치라고 합니다. 매우 반갑습니다.

B:저는 안톤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

- ① 천만에(그럴 필요없어) ② 엄청 아쉽네(유감이네)!
 ③ 기꺼이. ④ 잘 자! ⑤ 인사하세요.

정답은 ⑤번이다.

28. [출제의도] 문화

[해설] 러시아 문학 중 푸시킨에 대한 문제이다.

A: 남수야, 너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가 누구니(작가 있니)?

B: 러시아 작가라...나 있어. 그는 <나는 당신을 사랑했소..>라는 시작품과 <예브게니 오네긴> 소설을 썼지. 근데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네..

A: 아아! 그 사람은 푸시킨이야.

일련의 작품명을 통해서 푸시킨임을 쉽게 알 수 있다.

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.

- ① 체홉 ② 푸시킨 ③ 톨스토이 ④ 차이콥스키
 ⑤ 도스토옙스키

29. [출제의도] 언어문화

[해설] 한국어 어휘의미의 러시아어 대응표현을 찾는 문제이다.

‘전화고장’ 등 기기나 기계 등이 고장난 경우,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는 не работать로 표현하며, 이는 ‘작동하지 않음’을 의미한다.

마샤: 소라, 이게 무슨 뜻이야?

소라: 그건 전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뜻해.

- ① 내 전화 ② 좋은 전화 ③ 여기엔 전화가 없다 ④ 전화가 작동하지 않는다 ⑤ 전화 통화할 수 있다

30. [출제의도] 지리문화

[해설] 러시아의 지리에 관한 문제이다.

A: 우린 바이칼 호수에 가고자 합니다.

B: 그러면 이르쿠츠크행 티켓을 사세요. 이 도시는 울란-우테 다음에 있는 도시입니다.

지도상에 나타난 그림과 대화문을 통해 볼 때 바이칼이 소재한 도시는 이르쿠츠크이다.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.